

LG전자 'TV 명가' 쐐기... "세계 최대 97형 올레드 출시"

올레드TV 10주년, 사업전략 발표
초대형 프리미엄 시장 공략 강화
세계 최소 42형 더해 라인업 확장

LG전자가 TV 기술 혁신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앞세워 'TV 명가'의 리더십을 이어간다.

LG전자가 올해 올레드(OLED) TV 사업 10년 차를 맞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TV 명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

LG전자 박형세 HE 사업본부장이 2022년형 LG 올레드 TV 라인업을 공개하고 차세대 자발광(自發光) TV 시장 선도를 위한 사업전략을 4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올레드 TV 진영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을 주도해 온 압도적 1위 업체로서 시장과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차세대 자발광 TV 경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강조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올해 올레드 TV 시장은 총 800만 대 규모를 이룰 전망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140억 달러에 육박한다. 특히 올레드 TV는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미 프리미엄 LCD TV를 넘어섰다.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 등 최상위 라인업으로 올레드 TV를 선택한 브랜드도 20개 이상으로 늘었다.



LG전자 박형세 HE사업본부장이 4일 간담회를 열고 올레드 TV 신제품 라인업과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전 세계 올레드 TV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LG전자는 올해 올레드 TV 시장에서 97·88·83·77·65·55·48·42형에 이르는 업계 최다 라인업을 확보할 계획이다.

초대형 시청 경험을 원하는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올해 세계 최대인 97형(대각선 길이 약 246cm) 올레드 TV를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 세컨드 TV나 게이밍 TV 수요를 적극 공략하기 위한 세계 최소 42형(대각선 길이 약 106cm) 올레드 TV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차세대 올레드 패널을 사용하는 LG 올레드 예보(OLED EVO)의 라인업도 지난해 '1개 시리즈 77·65·55G1 등 3개 모델'에서 올해 '2개 시리즈 11개 모델(97·83·77·65·55G2, 83·77·65·55·48·42C2)'로 대폭 늘린다.



2022년형 LG 올레드 TV 라인업.

/뉴스시스

2022년형 LG 올레드 TV 전 제품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인터텍(Intertek)으로부터 ▲원작과 화면간 색의 명도, 채도, 색도 등을 평가하는 색충실도(Color Fidelity)와 ▲화면 밝기에 상관없이 정확하고 풍부한 색 표현 정도를 평가하는 컬러볼륨(Color Volume)을 모두 100% 충족한다.

LG전자는 올레드 TV를 필두로 한 자발광 디스플레이부터 QNED MiniLED, QNED, 나노셀 등 고색재현(Wide Color Gamut) LCD TV까지 현존하는 TV 디스플레이 기술을 폭넓게 활용하는 TV 풀 라인업을 운영한다. 특히 독자 고색재현 기술 '퀀텀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LG QNED 라인업을 미니 LED TV인 LG QNED M

iniLED뿐 아니라 일반 모델인 LG QNED까지 확대한다.

LG전자는 QNED, 나노셀 등 프리미엄 LCD TV에서도 초대형 위주로 제품 구성을 대폭 강화하며 올레드 TV뿐 아니라 LCD TV에서도 프리미엄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레드를 앞세워 TV 품팩터(외형적인 제품 형태) 혁신도 추진한다. LG전자는 TV 전체가 벽에 밀착하는 갤러리 디자인의 올레드 예보를 비롯, 최근 출시한 올레드 예보 오브제컬렉션은 화질은 물론이고 공간의 품격을 높여주는 디자인까지 동시에 원하는 수요를 겨냥한 제품이다.

박 본부장은 "LG전자는 F.U.N(First·앞선, Unique·독특한, New·새로

운)의 관점에서 고객경험(CX·Customer Experience)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LG 올레드 TV의 차원이 다른 화질과 디자인을 앞세워 다른 TV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 올레드 TV를 상용화한 이후 올레드 TV 고객에 대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webOS는 개인화(Personalization)를 기반으로 진화해 고객이 TV 계정을 선택하면 그간의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을 받아볼 수 있다.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두 대 이상의 TV 화면을 연동해주는 기능(일부 모델은 미지원)도 새롭게 적용한다.

특히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올레드 시장에 합류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본부장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레드 TV 시장에 진입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면서도 "20개 이상의 브랜드가 올레드 캠프에 합류했는데 삼성도 가세한다면 시장과 생태계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 합류와 상관 없이 마케팅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 미래 이끌 'R&D 컨트롤타워' 개원

포스코그룹 '미래기술연구원'
AI·이차전지·수소 중심 연구

포스코그룹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사업의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조직을 출범한다. 포스코그룹은 4일 그룹의 미래 신성장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인 '미래기술연구원'을 서울 포스코센터에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학동 부회장, 전준선 사장, 정택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래기술연구원은 그룹 미래 사업의 R&D를 주도할 창의적 연구공간으로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표 R&D 기관으로 도약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기술혁신이 빨라지고 저탄소·친환경 시대로 대전환되는 경영 환경에서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며 그룹 미래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미래기술연구원을 열었다.

연구원은 기존 철강 중심의 포스코 기술연구원과는 달리 인공지능(AI), 이차전지소재, 수소·저탄소에너지 등 3개 분야 연구소 체제를 기반으로 그룹 핵심 사업의 종합 연구를 추진한다.

AI연구소는 그룹 AI 컨트롤타워로서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AI 모델 설계 등을 통해 제조공정 등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이차전지소재연구소는 양·음극재, 리튬소재 분야 선행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을 주도하며 수소·저탄소에너지 연구소는 수소·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해 친환경 철

강 공정과 수소 양산 체제를 이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정보기술(IT) 기업과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포스코센터에 미래기술연구원을 개원했다"며 "향후 인건에 연구단지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정기임원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기술연구원에 김주만 AI연구소장, 김필호 AI연구센터장, 윤창원 수소·저탄소에너지연구소장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영입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작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9월 싱가포르 EPS사에 인도한 LNG 추진 대형컨테이너선.

한국조선해양, 새해 첫 수주... 1.7조 규모

LNG 추진선 등 총 10척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1조6700억원 규모의 새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인 1만5000TEU급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6척, 아시아 소재 선사와 17만4000m³급 대형 LNG 운반선 1척,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18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은 전남 영암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LNG 이중연료 추진엔진을 탑재해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를 만족할 수 있다는 게 한국조선해양의 설명이다.

대형 LNG선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4년 하반기 인도될 예정이다. 대형 LNG선은 길이 289.9m, 너비

46.1m, 높이 26.3m 규모로 LNG 이중연료 추진엔진뿐 아니라, 선박의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LNG 재액화 기술도 탑재됐다. 이번에 함께 수주한 18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은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부터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실제 발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수주 잔량을 확보한 만큼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총 226척(해양 3기 포함), 약 228억달러(27조 2200억원)를 수주(잠정 기준)해 목표인 149억달러(17조 8000억원)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는 조선해양 부문 수주 목표를 174억4000만달러(20조 8000억원)로 수립했다.

/양성운 기자

'로봇이 세배'... 현대차그룹 신년 광고 눈길

미래 신사업 연계... 차별화 평가

국내 기업들이 과거 틀에서 벗어나 기업의 미래 방향성을 담은 광고를 제작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CG로 구현된 인공지능(AI) 인플루언서 로지가 광고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데 이어 이번엔 현대자동차그룹이 로봇이 세배를 하고 사람들과 어

우려져 마당놀이를 즐기는 콘셉트의 임인년 새해 인쇄 광고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신년 인쇄 광고로 로봇들이 해가 뜨는 팔각정에서 세배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세배 편', 로봇들이 사람들과 함께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마당놀

이 편' 등 두 편을 제작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새해 인쇄 광고는 해돋이 풍경이나 어린이들의 모습 등을 통해 희망을 전달하는 형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핵심 미래 신사업 중 하나인 로봇을 등장시켜 메시지 전달 방식을 차별화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의 새해 광고에는 지난해 인수한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서비스 로봇 '스팟'과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현대차그룹의 비대면 고객 응대 서비스 로봇 '달이' 등이 등장한다. /양성운 기자